****

장애를 넘어서

모두가 속하고 | 모두가 섬기는

**2021년 봄 | 주제: 인종과 장애**

흑인, 원주민 또는 유색인종으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개인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고 사회적 기회 또한 줄어듭니다. 이번 호 저자들은 인종과 장애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나쁜 애들로 만들지 마세요**

**디디 엘. 와츠 (Didi L. Watts) 박사**

R.O.C.K. 교회 (RCA),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20여 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저는 오랜 노숙자 생활이나 만성질환 등의 구조적인 문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흑인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특수 교육에 배정시키는 무의식적인 편견이었습니다. 흑인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큰 기대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소외당한다고 느낍니다. 앨 (Al) 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앨은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3학년 때 고의적인 반항으로 이틀 동안 정학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낮은 학업성취도 때문에 특수 교육 평가를 의뢰했지만 앨은 해당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앨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매 학년당 평균 31일의 잦은 결석을 해야 했습니다. 앨의 가족은 그가 학교를 다니는 내내 불안정한 주택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2년 간 다른 여러 학교로 전학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앨은 기물을 파손 혐의로 하루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앨은 6학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그곳에서 그 해 1/4분기 만을 다녔고 다른 학교로 다시 두 번이나 전학을 다녔습니다. 앨은 또 고의적인 반항으로 하루 정학을 당했습니다. 그는 성적에 있어서 교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었고 낮은 성적은 물론, 이해력도 낮았습니다.

앨은 7학년 때 특수 교육에 대한 재평가를 받았고 주의력 결핍과 같은 특성때문에 기타 건강 장애 (OHI) 자격기준에 들었습니다. 앨은 학교의 특별 수업반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8학년 때까지 그 학교에 남아 있었는데, 그 때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이 그에게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은 비공립 학교 환경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학군이 학생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주에서 한 특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립 학교에서는 결국 장애가 없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이 학생을 떼어놓습니다).

앨은 편견 때문에 특수 교육에 배정된 수십만 명의 학생들 중 한 명입니다. 주거 불안이나 건강 관리 부족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일탈 행동의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특수 교육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병폐라며 이들을 나쁜 아이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학생들은 얼마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예방과 개선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합시다.

**직장 내에서 흑인 장애인으로 살기**

**마르커스 로텐 (Marcus Wroten)**

메이플 애비뉴 선교회 (CRC-RCA), 미시간 홀랜드

세상이 아니라고 말해도 미국에서 흑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대개의 경우 당신이 흑인이라면 그것은 불리하게 태어난 것이고 투쟁의 현장에 태어난 것입니다. 흑인의 소득은 낮고 한 부모 비율은 높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들 (나 자신을 포함)의 70-80%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당신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열 배나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감당할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모에 기반을 둔 사회에 살고 있고, "더 보기 좋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더 외모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부색을 더하거나, 혹 여성이라면, 불리해질 가능성은 매우 더 커집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돈 잘 버는 직업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겁이 납니다.

내 모든 교육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좀 더 평등한 세상이라면 우리 모두는 피부색이나 신체적 한계가 아닌 인격에 근거해 평가받을 것입니다. 나는 뇌성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거절당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좌절의 원천이라고 말한다면 그나마 절제된 표현일 것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나 혼자만 이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42세의 나이로 두 번째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에 다시 들어가기로 했고, 나는 이 결정에 많은 것을 걸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 나와 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 미래의 고용주들에게 보여줄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장애를 가진 흑인인 나는 항상 포용을 구걸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비드가 소외된 그룹에 미친 영향**

**마이킬 에드워즈 (Micheal Edwards) 박사 목사**

총무, 미국개혁교회(RCA) 뉴욕대회

이번 감염병 기간 동안 많은 의료 기관이 인종 및 장애와 관련하여 더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이 나타났음을 언급했습니다. 뉴욕 지역 대회 내 교회- 농촌, 도시 및 교외- 공동체에서, 코비드-19 로 말미암아 흑인 및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부족한 정보 제공과 부족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자기관리와 회복 등을 위한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별이나 사회 경제적 요인을 막론하고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색인종과 장애인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한 장애인의 경우, 생물학적, 심리적, 생활방식, 환경적, 사회적, 이웃과 관계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감염병 과정에서 증폭되었습니다. 뉴욕 대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교회를 교육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쉽게 무시되는 인지 장애**

**욜란다 디아즈 에스콜라스티코 (Yolanda Diaz Escolastico)**

마블 대학교 교회 (RCA), 뉴욕 주 뉴욕 시

제가 처음 눈에서 작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저는 건강한 25세였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하며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방향감각 상실, 어지러움, 시야 흐림, 낙상 등 문제가 더 잦아졌습니다. 27세 때 저는 중앙 신경계에 나타나는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 (MS)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여성으로서 저는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을 가진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오늘 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9살 자폐증 딸도 두고 있지만, 다발성 경화증은 저의 인지능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주로 히스패닉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인지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있거나 어리석다고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은 제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가 정직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겉으로 보여야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제약도 있다는 사실을 잘 잊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괜찮아 보인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저에게 정말로 아프냐고 묻는데, 그들은 제가 안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몇몇 가족과 친구들은 저의 인지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저의 일상적인 고충을 무시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이고 제 마음이 주변과 단절되는 날들이 참 고달픕니다. 혼란, 기억력 저하, 심지어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날들은 결국 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2008년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행기를 이용했고 옷을 입고 식사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와주는 의사들, 약물, 치료, 그리고 가족의 지원 덕분에 많은 신체적 장애는 개선되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의료 보조를 받고 지팡이를 짚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보기엔 제가 괜찮아 보여서 그런지 다발성 경화증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민족적 정체성도 차별의식을 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문화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 장애는 실재하는 병이고 제가 느끼는 답답함도 그렇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보이지 않는 증상에 대해 사람들이 좀 더 배우려고 시간을 내고 동정심을 보인다면 이런 답답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제 진심 어린 소망은 제가 가진 이 보이지 않는 한계를 이해해주는 공동체 속에 온전히 포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발성 경화증(MS)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발견한 즐거움**

**앤젤라 테일러 페리 (Angela Taylor Perry) 목사**

텍사스 포트워스

아래의 도전들은 매일 “더 힘내, More Strength” – 실은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이지만 내 방식으로 이 병을 부르는 애칭 – 로 살아온 저의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65세가 넘은 흑인 여성으로서 저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기쁨이 오히려 제가 열거할 수 있는 각종 슬픔의 목록을 능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힘은 위에서부터 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이 제 앞에 앞서가서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길을 밝혀줍니다.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첫해, 저는 제 잔의 반이 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살려는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는 패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35년 동안 지병을 앓았지만 그것은 삶의 모든 기쁨이었고, 다발성 경화증, 즉, 더 많은 힘의 선물이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수많은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저의 선물입니다. 그는 나의 바위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경험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공평을 향한 우리의 일**

지난 수년간, 공동 편집자인 테리 드 영과 저는 "북미주 사회의 편차, 권력, 그리고 특권"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사회가 중시하는 다양한 특성들을 두 줄에 걸쳐 나열한 작업지를 배포하고, 참가자들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하는 대로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게 요청했습니다. 민족성을 묻는 것에는, 참가자들이 "유럽계 미국인" 혹은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능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혹은 "장애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없음" 혹은 "유죄판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성 능력에 대해서는 "평범함" 혹은 "교류가 어려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번째 특성인 왼쪽 줄에 있는 특성들 (유럽계 미국인, 비장애인 등등)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오른쪽 줄에 있는 특성들에 더 많이 동그라미를 친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비록 각 개인은 열거된 대부분의 특성들을 맘대로 가지거나 버릴 수 없음에도 사회는 어떤 것에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한 사람이 오른쪽 줄에 있는 더 많은 특성들을 가질수록 사회는 그들에게 교육, 고용, 주거 등을 위한 기회를 더 적게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른 “정체성”으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노력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호 <장애를 넘어서> 에 나오는 몇몇 이야기들이 시사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특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는 장애를 가진 유색인종의 뺨을 두 번 거듭해서 때립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바로 교회는 모든 이의 공평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 **마크 스티븐슨 (Mark Stephenson)**

**다음 호 주제들**

2021년 여름—예술과 장애

만약 당신이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당신의 시, 단편소설, 사진 혹은 당신이 창조한 시각 예술 작품의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의 장애에 관한 것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글로 된 작품이라면 최대 400단어까지 허용합니다. 마감은 **4월 2일** 입니다.

2021년 가을—언어 능력 차이

말투에 영향을 미치는 말더듬이나 뇌성마비 등 언어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다 끝내지 못하게 재촉받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능에 대해 넘겨 짚는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어 능력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400단어 이하로 제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2021 북미주 개혁 교회와 미국 개혁 교회의 장애우 사역부. <장애를 넘어서>는 CRC 장애우 사역부에서 계간으로 발행합니다. 주소는 170028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및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입니다. RCA 장애우 사역부는 4500 Strapids 46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입니다. CRC 장애우 사역부 책임자 마크 스티븐슨 목사 (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와 RCA 장애우 실무자 테리 드 영 목사 (616-541-0855; tdeyoung@rca.org) 가 <장애를 넘어서>를 함께 편집합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기사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국 개혁교회의 협력사역

장애우 사역부

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